“마음 내려놓는 것, 궁극적인 방생”

조계사, 9월 3일 담양 용흥사서 방생법회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수와 산림, 그리고 전통사찰이 어우러진 전남 담양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9월 3일 계묘년 하안거 회향을 맞아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를 찾아 특별한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3000여 명의 조계사 신도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을 비롯해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노 담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방생의 가장 큰 의미는 생각을 쉬는 것이고, 마음을 놓는 것이 궁극적인 방생”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선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니 좋은 인연으로 선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용흥사는 조선 8대 비보사찰 중 하나다. 웅장한 비기를 품고 있는 사찰이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돼 최근 2000년부터 복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숙빈 최 씨가 이곳에서 기도해 영조를 낳은 영험 있는 천년고찰”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당초 비소식이 있어 걱정했지만 다행히 화창한 날씨에 방생법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생명살림 방생기도에 동참한 공덕으로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은 영산강 시원지를 갖고 있는 생태도시다. 많은 문화유적을 품은 내륙형 관광의 일번지이자 남도 멋을 간직한 고을”이라며 조계사 측의 담양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는 ‘생명살림’의 의미를 담은 치어 방생, 몸이 아픈 지역 어린이 10명에게 각 100만원의 성금과 선물 전달이 진행됐다. 또한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선원과 율원 등 수행도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용흥사를 위해 조계사가 불사지원금 5000만원, 이승현 신도회장이 1000만원, 신도회장단 1200만원, 자문위원회 1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참가한 신도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담양의 지역특산품 매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 살리기에 동참했다. 조계사는 이미 경내에 전남 담양과 장성의 농산품으로 직거래 형태의 매장을 운영해 많은 지역상품을 구매한바 있다. 이날 행사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상단불공에 이어 빙생기도, 법문, 기금전달식, 치사, 시식, 방생이 진행됐다.



9월 3일 담양 용흥사에서 봉행된 조계사 생명살림 방생법회.

범어사, 수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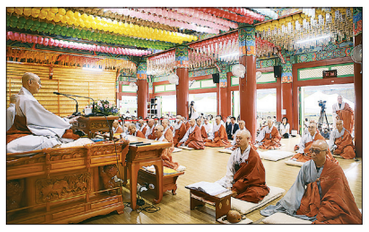
9월 2일, 지유 대종사 백중 회향법문 설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9월 2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회향했다.<사진>

범어사는 90일 동안 선지식 초청 법회를 봉행하며 백중기간 조상영가천도를 위해 기도해왔다. 특히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과 임원진들은 최근 발생한 수해 희생자를 위한 기도시간을 갖고, 마지막 회향 관음시식에서 함께 절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백중지장기도에는 지유 대종사와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승가대학장 정한 스님, 율학승가대학장 원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300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동참했다.

대령관욕 의식을 시작으로 상단불공, 명종5타, 개식사, 삼귀의례, 음성공양 및 차 공양, 지유 대종사의 회향 법문, 관음시식, ‘금강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시식 후 스님들이 선두를 이룬 행렬을 따라 위패를 이운 했으며 참석 대중은 함께 소대로 이동해 봉송 의식을 봉행했다.



지유 대종사는 백중의 유래와 목련존자의 효심을 설명하며 “현재 모습은 과거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선업과 악업의 그림자와 같다”며 “스스로 지은 업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지역이 수해피해를 겪어 안타까움이 많았다. 특히 수해로 인해 희생자가 있었는데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함께 애도하고 천도의 뜻을 보내셨다”며 “범어사는 백중 기간 동안 수해피해자들을 위해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해왔다. 신도들도 함께 동참하며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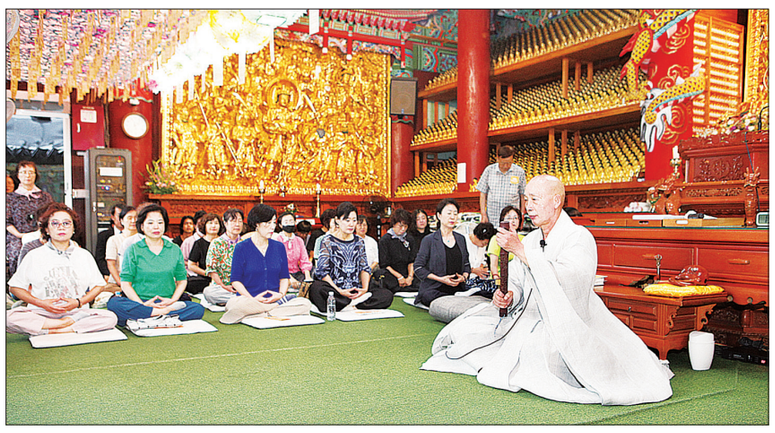
누구나 사찰서 즐기는 명상수행

부산 마하사, 오는 17일까지 연제구 웰니스 프로그램 제공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가 9월 2일 경내 대웅전에서 ‘마하 아하! 마하 위크-연제구 체험형 웰니스관광콘텐츠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사업은 부산 연제구와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민 대상 힐링 사업이다.

개막식에는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을 비롯해 이주환 국회의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최홍찬 연제구의회 의장 및 사부대중 4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정산 스님은 “도시문명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마하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을 안내하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이 대중에게 그룹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찾는 시민들이 명상을 접하고 몸과 마음에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시민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연제구청도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찬 연제구의회 의장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평안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개막식 이후 주지 정산 스님은 그룹명상을 진행하며 명상에 대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진 절명상에서는 혜성 스님이 절 수행법을 설명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불화 컬러링 아트테라피와 만다라 그리기도 이어졌다.

‘마하 아하! 마하 위크-연제구 체험형 웰니스관광콘텐츠 사업’은 오는 17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진행된다. 총 3주차 동안 공통 프로그램인 절명상과 그룹명상(호흡)이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느낌 나누기가 진행된다. 특화 프로그램은 불화 컬러링, 만다라 그리기, 연산모종 사운드배스, 싱잉볼 알아차림 명상, 사찰푸드 테라피가 마련됐다. 특히 사찰푸드 테라피는 감정 노동자를 위한 시간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매회 40명(사찰 푸드 테라피의 경우 20명)씩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연제구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051)866-060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광학원, 설립자 만암 대종사 기려

대승원 1층 입구에 대종사 존상 제막

불교교육 선구자이자 불교종립 정광학원 설립자인 만암 대종사의 존상이 제막됐다.

불교종립 광주 정광학원(이사장 자공)은 9월 4일 대승원 1층 입구에 설립자 만암 대종사의 좌정한 존상 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영림 장인이 제작한 존상은 청동으로 높이 110㎝, 폭 90㎝ 크기로, 만암 대종사가 50대에 활동한 모습을 표현했다.

제막식에는 이사장 자공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등 정광학원 이사와 이동배 정광고교장, 정경심 정광중학교장이 참여했다. 제막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약력 소개 및 경과보고, 제막, 헌화, 인사말, 사홍서원,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자공 스님은 “만암 대종사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설립하셨고, 그 높은 뜻이 오늘날 광주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했다”며 “‘배고픈 시기에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큰스님의 원력이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존상 제작 책임을 맡은 만당 스님은 “1920~30년대 큰스님의 모습을 담은 형상으로 육계와 높은 수행자 눈동자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존상은 화강암 기단 위에 가죽나무 받침을 넣어, 학교의 상징인 대승원 입구에 안치했다. 존상은 지난 2022년 제작한 흉상 형식을 대신해 새롭게 조성됐다.

한편 만암 대종사(1876~1957)는 1910년 백양사 청류암에 신교육기관 광성의숙을 설립하고, 1916년 민족의식교육을 위한 심상학교,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 전신) 설립, 1946년 목포 정혜원에 정광학원·정광중학교 설립, 1947년 불교정화를 위한 호남고불총림 결성, 1948년 현 광주 광산구 송정읍으로 정광중학교를 이전하고 1951년 정광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1951년 조선불교 제3대 교정과 1954년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종정에 취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8년 이어온 교구 본·말사 연합방생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남해 관음포서 법회 봉행

고산 대종사의 원력으로 매년 하안거를 마치고 본말사 사부대중이 봉행해 온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주지 영담)의 제38회 자비방생법회가 9월 1일 이순신장군 순국지인 남해 관음포에서 거행됐다.

자비방생법회는 판소리 갈라쇼, 범패, 자비방생법회 축원, 육법공양, 개회식, 대회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청법가, 법어, 축사, 방생 순으로 봉행됐다.

쌍계사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쌍계사 방장 고산 대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작된 자비방생법회가 38년 동안 이어져온 것은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주신 본말사 대중스님들의 인고의 노력 덕분”이라며 “천지는 동근이요 만물은 일체라고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처럼 뭇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환경과 자연환경까지 방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주의, 주장이 만연된 역동적인 사회인 반면, 국민통합과 소통에는 다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때에 불자가 먼저 이웃과 소통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나아가 세계와도 소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 38년 동안 방생법회를 해온 건 쌍계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야단법석”이라며 “경남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화합을 다지고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시키는 법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일 남해 관음포에서 봉행된 쌍계사 본말사 연합방생법회.

장충남 남해군수는 환영사에서 “자비방생법회는 생명존중과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님들의 뜻을 실현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방생법회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 하시고 불국토를 이루는 큰 걸음이 여기서 시작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쌍계사 자비방생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치어 1만5000여 마리를 관음포 앞바다에 방생하며 나라의 번영과 사회의 안정,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자비방생법회에는 쌍계사 교구장 영담 스님,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남해사암연합회장 성각 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최만림 행정부지사, 임태식 남해군의회의장, 각 사찰 대중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 사회운동 조명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지구촌공생회 추모학술대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보살도를 실천하며 한국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끈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조명하는 추모학술대회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지구촌공생회가 주최한 추모학술대회는 ‘태공당 월주 대종사, 진속불이(眞俗不二)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9월 1일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에서 열렸다. 추모학술대회는 나눔의집, 지구촌공생회, 함께일하는재단 등을 통해 월주 대종사가 실천한 사회활동을 집중 조명했다.

학술대회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의 사회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의 ‘태공당 월주대종사와 나눔의집’,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와 지구촌공생회’,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와 함께일하는재단’,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와 전북불교 사례에서 찾아보는 지역불교 활성화 모델’, 이현수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 승탑 건립을 위한 소견’이 발표됐다. 이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을 좌장으로 종합토론과 총평이 진행됐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종단을 위해 젊음을 바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웃종교인과 손을 맞잡았다”며 “평생 중생의 이익을 위해 진력해 오신 스님의 보살도 정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은 “학술대회를 주관해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과 패널들께 감사드린다”며 “월주 대종사의 사상과 보살도 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학술대회가 9월 1일 전주 서고사에서 열렸다.

‘현대적 해석’ 순천 세계유산축전 성료

괘불탱화 디지털 기술로 재현해 호평 받아

8월 한 달간 순천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와 순천 갯벌을 만끽할 수 있는 ‘2023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이 막을 내렸다.<사진> 지난 9월 2일 선암사 대웅전 앞에서 진행된 ‘선암사 괘불 디지털아트 퍼포먼스-야단법석’을 끝으로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마쳐 내년 행사를 기대하게 했다. 폐막과 함께 펼쳐진 행사는 선암사 대웅전 마당에서 석가모니불 괘불탱화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차원으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무대였다.

이날 대웅전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선암사의 자연과 사물에 대한 영감, 괘불탱화의 화려한 색채와 신비한 분위기가 실감 영상 콘텐츠로 구현돼 관람객들이 괘불탱화에 둘러싸인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재근 축제위원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순천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내년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암사 괘불은 예술적 가치가 높아 미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연구대상이 돼 왔다. 특히 이번 영상으로 재현한 괘불은 이러한 가치를 디지털아트 퍼포먼스로 선보여 디지털아트의 매력을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평면적 그림과는 다른 색다른 시각과 느낌을 전달해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선암사 괘불탱화에 영감을 받은 퍼포먼스 팀은 “‘나를 찾아서’라는 부제로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고, 나를 찾는 여행의 끝에는 모두가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순천 세계유산축전 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괘불 디지털아트 퍼포먼스-야단법석은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의 대화를 디지털아트라는 매개체로 표현하면서 세계유산 선암사의 의미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